# 숲정이

예수부활 대축일
제 1 독서 : 사도10, 34 a . 37-43
제 2 독서 : 골로 3, 1-4
복 음 : 요한20, 1-9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요한 20, 7)

## • 부활절 메시지

# 부활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우리 주님에 의해서
> 우리가 매일 삶에서 당하는
> 온갖 모양의 고통도 그냥
>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크고
> 순수한 기쁨과 참된
> 행복으로 건너가기 위한
> 다리가 될 수 있음을
>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죽으셨다가 새로운 생명 속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은총이 한분 한분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까지 함초롬히 스며들어, 봄기운과 함께 태양을 향해 솟아오르는 풀 나무들처럼 새 생명의 기운이 거기서 피어오르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소가 웃을만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웃지 않고 오히려 결점투성이인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갖은 방법으로 용기를 북돋아주심에 대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의 서품 피정기간을 전후해서 바쳐주신 여러분의 정성어린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곧잘 굳어지는 저의 마음까지도 봄눈처럼 녹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바쳐주실 기도로 해서 성령의 그런 솜씨는 앞으로의 제 삶 속에서도 끊이지 않으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한두가지만을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활은 무엇보다도 죽음 혹은 고통의 정체와 그 의미를 밝혀주는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은 "고통의 바다"라는 말도 있고, 한때 이스라엘의 비참함이 "바다만큼이나 컸다"고도 하지만,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나름대로 다 절실히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삶에 따른 어려움은 사람에 따라서 그 얼굴 모양만큼이나 다르지만, 누구 하나 거기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컨데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의 삶은 짧고 괴로움으로 가득차 있다"(욥4,1)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고통의 극치이자 그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요근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율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글자 그대로 죽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모습이 죽은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이며,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 주님에 의해서 깨끗이 해결되어 이제 더이상 "죽음이 죽음이 아니오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은, 죽음 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당하는 온갖 모양의 고통도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크고 순수한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 그 자체가 좋은 것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누구나 그것은 가능한대로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런 마음입니다. 예수께서도 수난을 앞두시고 극도로 마음이 심란하시어 가능하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조그만 어려움만 당해도 쉽게 의기소침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런 간절한 소망은 들어지지 않았고, 그분의 뜻 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이런 사태 앞에서 보이신 그분의 반응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분은 그때 당신의 뜻을 거두시고 아버지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쪽으로 결단을 내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인간 뿐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조차 버림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심정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서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태어나신 분"이 되셨으며, 구원된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아사 65, 17참조)에 맨 먼저 들어가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그분을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임"(요한 11, 25)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종류의 고통과 그 최종적인 모습인 죽음은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통은 아무 의미없고 억울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것, 즉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산고(産苦)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총이 주어졌다"(필립 1, 29)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삶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스며들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어떤 처지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율에 관한 조사보고서에서 종교인, 그중에서도 특히 가톨릭 신자들의 자살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외두르거나 어떤 종교적 감흥을 통해 그것을 잊어버림으로써가 아니라 이를 정면으로 맞이하고서도 비신앙인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주시리라"(에페 5, 14)

1990. 4 부활절

교구장 이 병호주교

# 안주하지 않습니다"

## 전주교구의 오늘과 내일

### 가 생길 때
### 한 메시지를 주십시오 —

▲사회 : 옛날 신부님 말씀이 10리길을 걸어 손에 꼭 쥐고온 따뜻한 달걀하나 신부님께 선물하는 정담긴 얘길 한적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자들은 "신부님 승용차가 그게 뭡니까. 새걸로 바꾸시죠" 하고 부추기는 평신도들의 사고도 바꿔야죠. 가난한 목자, 바람직스런 사제를 얘기하다보니 자칫 사제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비춰질 염려도 크군요. 이젠 평신도들 얘기를 좀….

▲김 말따: 작은 선물을 신부님께 줘야함에도 물질공세를 펴는 평신도의 경우 반성해야 합니다. 물질공세의 경우 그런신자일 수록 사제를 더 비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신부들을 평신도들이 흔들어대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문 비오 : 「예수의 작은 형제회」 수사님들 얘기인데 그들은 최저임금에 정말 돈과 거리가 멀게 수도생활을 하는 것이 수도원 설립 목적인데 그들이 한국에서 수도생활을 정말 못하겠다고 투덜대는 이유가 평신도들의 과분한 보살핌과 선물공세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신부 :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들의 권리강화죠. 전주교구의 년간예산이 30여억원입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그 예산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즉 주인의식 없는 것이죠. 평신도들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사회 : 봉헌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최 안젤라 : 큰돈 헌금자는 몇명 안되고 대체적으로 봉헌에 너무 인색합니다. 더구나 사회복지회비엔 더욱 기피현상이 뚜렷해요. 너도나도 천원에 만족하거든요. 성당신축 등에 솔선수범해야 할 있는 자들이 너무 짜기만 합니다.

▲문 비오 : 봉투에 이름써서 내라면 거액낼겁니다. 바구니에 넣으니까 문제죠.(일동웃음)

▲사회 : 도시와 농촌의 봉헌의식이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죠. 성당살림을 사제나 몇몇 사목회 임원들이 끌어나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문 비오 : 우리는 주일미사에 나가면 낯은 익지만 옆형제 자매와 대화의 단절상태로 지내죠. 말로만 그리스도안의 형제자매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그냥 알게 모르게 지나칩니다. 정말 나눔의 의식을 잊고 삽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도시들은 생활이 어려운 시골 본당이나 공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나눠져야 합니다. 결연방식이든 단체별 교류이든 깊이 생각해 봄직합니다.

### 신부들의 공동생활

▲전 신부 : 도농간의 예산도 문제죠. 교구에서 최고예산본당이 년1억2천, 제일작은 시골본당이 년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특수사목을 개발해야 합니다. 즉 사제와 사제간의 일치와 초대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본받기 위한 공동체 즉 사제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숙사 비슷한 생활처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생활처가 절실한 때입니다.

▲사회 : 특수사목엔 예산타령이 필요없습니다. 예를들면 농민, 학생, 노동자들의 제 갈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우고 지표가 될 특수사목자가 절실합니다.

▲최 안젤라 : 본당신부는 성당 안에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감과 비전문성에서 오는 갈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특수사목자의 양성이 시급합니다.

▲사회 : 우리 교구는 농촌교구, 우리가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요.

▲전 신부 : 몰락해가는 농촌은 더욱 소외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부1인당 년간소비하는 돈이 2천만원. 전주교구 신부 년간 사용액이 20억. 30억 예산중 20억이 소요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할 경우 5억이면 족해요. 15억을 사목활동 등 부자스럽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묵은 틀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사회 : 신설본당의 경우 교구청에서 부지와 막사 이외엔 모든 신축비를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전 신부 : 신축성당이나 사제관 건립이다 개축이다하여 평신도 부담가중 이 엄연한 현실이며 불만도 많습니다.

▲문 비오 : 신설본당이 있을 경우 교구차원 모든 성당서 십시일반 특수성금을 미사시간에 거둬 해당본당 신자의 짐을 덜어주면 어떨까요.

### 새주교님께 기대한다

▲사회 : 순례하는 나그네는 안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 내본당이라는 동참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더우기 농촌사회학을 공부하신 새주교님에 기대가 큽니다.

▲전 신부 : 민생·사회문제 등 산적한 이 사회에 우린 무얼 하고 있는가. 우리 전주교구를 새롭게 진보할 수 있게 연구계발할 수 있는 「교구공의회」가 구성되어 당면한 현안들을 진단 처방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문 비오 : 뒤떨어진 교회가 반성할 때입니다. 전문인력을 확보, 주먹구구식 운영을 탈피하는 브레인 양성과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즉 「교구공의회」같은 기구말입니다.

▲사회 : 교구 시스템 후진성은 심각합니다. 평신도들의 수많은 전문두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아쉽습니다.

▲문 비오 : 전북사회에 이슈가 생길 때 주교님께서 적절한 메시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최 안젤라 : 권위의식은 금물이지만 여신도에게도 관심을 쏟아주시고 가정 속의 어머니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길 주교님께 바랍니다.

▲김 말따 : 나눔의 공동체, 가난한 자에게 눈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난한 교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 장시간 감사합니다.

### 요십이 (871) 김병오

휴대폰, 카폰, 삐·삐, 차량안테나
크라운 삐·삐. 전북총판
전주크라운이동통신
전주 ☎ 72-2110
유 옥 상(마티아)·강 만 규(로-사)
군산 올림픽통신
군산 ☎ 43-0160
송기용(아우스딩)·윤옥경(모니카)
모토로라·금성·삼성·현대·OPC

주방·욕실·거실·내실·다용도실 선반
베이비장·서랍장·화장대·각종수족관
성원인테리어전북영업소
전주시 금암2동 1584(주)북부시장내
서 원 식(아고버)
☎ (0652) 78-1941
※ 예쁜 주부, 남, 여 사원을 찾습니다

유치부·국교부·중등부
아이큐속셈학원
원장 권 병 길(요 한)
원감 심 희 숙(클라우디아)
군산시 나운동(호수가든 앞)
☎ 63-6466. 62-1722

제3기 사랑의 메아리
수 화 반 모 집
※ 주부반 - 월, 목요일 오후 2시
※ 직장반 - 월,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회복지회관(구. 성모병원)
☎ 84-5290
개강 : 4월 16일 (월요일)

신 서 일 가 스
각동마다 무전기 차량대기
신자들한테는 염가로 모시겠음
☎ 72-0678. 251-3555
4-3375. 75-8688
정 찬 권(바오로)
최 영 희(마리아)

8차 성지순례단 출발
6월 26일~7월 13일
(17박18일)
비엔나 - 베니스 - 아씨시
로마 - 바티칸 - 이스라엘
이집트 - 스위스 - 루르드
파리
전일해외여행사
☎ 6-6666 ~ 8
조 선(안토니오)

금·은·보석·시계·도장·고무인
명 랑 금 방
한 일 섭(요 왕)
김 경 자(마리아)
전북대 입구
☎ 77-1926. 72-9698

자동차 중고매매
대중자동차상사
이리시 영등동 261-22
김 대 조(안드레아)
오 택 수(요 아 킴)
사무실 3-6655, 3-6606
자 택 3-0839, 3-1160

연지·곤지·웨딩드레스
약혼복·무대복·마춤대여
비데오·야외스넵촬영
신부화장
유 순 례(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 82-2347

일분명상
어린이는 부모의 말씨를 닮는다. 성격은 그 말씨로 안다. 어린이에게 무엇을 약속했으면 꼭 지켜야한다.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어린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된다.
히브리 격언
명동피부과의원

특집 좌담

# "순례하는 나그네는 ( 새 주교님을 맞이한 전주

## — 주교님, 전북사회에 이슈가 적절한

때 : 90년 3월28일 하오6시30분
곳 : 교구청 홍보국장실
참석자 :
전종복(사도요한) 원평성당 신부
문치상(비오) 전북일보 편집부국장
김영자(말따) 가톨릭사회복지회 총무
최명자(안젤라) 인후성당 신자
사회 : 한상갑(바오로) 평협부회장
기록 : 이중호(디모테오) 전북일보편집부차장

### 영성과 관리운영이 문제

▲사회 :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주교구는 초창기 가톨릭이 뿌리를 내렸고 숱한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써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부활과 새주교님의 착좌를 앞두고 자치교구 설정 50년을 넘어 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위상 정립과 교회는 어떠해야하는가를 자성함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점검해 보도록 하죠.

▲전 신부 : 25년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도교회에 인격성을 부여,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현세 질서를 쇄신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구원사업으로 사랑의 복음을 선포성화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 지도하는 목마른 사람들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구성원을 이끌어 갈 영성과 관리운영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안젤라 : 그렇죠. 전주의 경우 모악산을 중심으로한 신흥종교가 많은 편이죠. 즉 타종교와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해야하느냐도 중요하죠.

▲사회 : 우리 이제 만천하에 들어난 교회의 모습을 좁혀 우리 얘기를 해보면, 평신도들이 그리워하는 성직자나 수도자의 표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직자는 공동체의식이 없다. 즉 교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에도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 평신도들의 의견을 외면하는 경향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 교회의 중산층화

▲김 말따 : 사제들이 교구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 본당만을 알고 모든 것을 치적위주의 사목활동도 간과해 선 안돼죠. 사제관 신축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평신도들은 외면당한 채 독단적 결단에 의해 실행하는 것도 한 예지요. 치적위주 사목을 탈피, 가난하고 소외된 신자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비오 : 예전과는 달리 현세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천주교회의 모습에서 지식층 전문인 남자신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신도들에 대응해서 사제나 수도자들의 모습도 변해야죠. 권위의식에 평신도들의 의견수렴을 외면하는 괴리를 사제들 스스로가 타파해야죠. 신도구성비를 생각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목활동이 시급합니다.

▲사회 : 전신부님, 신도 구성비를 말씀해 주시죠.

▲전 신부 : 대략 전북의 경우 도시7만5천, 농촌3만5천정도인데 남녀 4 : 6정도 될겁니다.

▲문 비오 : 예비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중엔 고학력자들이 상당수 있고 천주교를 지향하는 지식층들중엔 고위 공직자나 예술분야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죠. 사회변화 신도변화에 따라가는 사목활동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반성할 때입니다.

▲전 신부 : 중산층에서 대거 천주교회에 입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제들이 자기 직분에 일부는 안주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자의 속성이랄 수도 있죠. 사랑과 고통의 양면성을 조화할 수 있는 사제들의 자성을 기대합니다.

▲김 말따 : 신자들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중산층과 같이 사제들도 중산층화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할 수록 교회 안의 소외된 자들은 더욱 소외되어 몫이 줄어드는 모순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의 종이어야 할 사제들이 가난하지 못한 목자로 투영될 때, 신자들은 갈등과 방황을 하게됩니다. 가난한 목자의 본문을 잊은 성직자 아래서 소외된 신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 신부 :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일동웃음)

### 인색한 봉헌태도

▲최 안젤라 : 평신도들도 유식해졌다지만 평신도들이 사제의 고통을 모르고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순명이 미덕인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신심단체를 맡거나 조금 활동적이면 가정을 외면하다시피 과중한 활동의 중압감에 시달리는 여신도들이 많은데 신부님들의 강요된 명령이 무섭기도 합니다. 순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이젠 신부와 평신도들과의 대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 숲 정 이 산 책

알렐루야!

축! 예수부활

향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꽃집
이 마리아·범 디또
☎ 84-2628

피아노 · 미술지도
동화미술원
완주군청뒤, 초원맨션앞
☎71-1261
양 혜 진 (안젤라)

야유회를위한 레크리에이션 강습회
일시 : 1990. 4. 21(토) 오후 3시~7시
22(일) 오후 2시~6시
장소 : 기아자동차 전주지점 4층(경기장옆)
접수 : 10,000원(교재대 포함)
YMCA 및 당일현장 접수가능
접수순 80명 제한
한마음레크리에이션
☎ 74-4748, 77-0213

우리안경
박 성 환 (즈가리나)
김 명 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 앞)
☎85-8848

직원모집
회계원
남 ○ 명, 여 ○ 명
오 재 천 (안드레아)
카이저호프
☎85-8801

祝 開院
조주온치과의원
원 장 조 주 온 (헬레나)
* 전북대학교병원 치과, 보철과 인턴 레지던트 수료
* 현.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2층) 조주온치과
조흥은행 주택은행
한성여관 문화회관
☎87-8291

자동차아씨방
① A.S.S 자동차 도난 방지기 설치
② 쿨메이드 (자동차용 온, 냉장고)
③ 오터쟈키 (쟈키에어주입, 공기청소기 등 5가지 자동기능)
④ 파워뱅크 (레저용 휴대전원)
⑤ C.C.L (나이트 상하향, 정지, 출발 컴퓨터 자동조절 설치)
⑥ 지압 등받이 (운전자 피로격감)
⑦ 미라큐린 (김서림방지액)
※ 자동차 살림의 필수품도산매
다이한 플래닝
김 무 (도미니꼬)
☎ 77-7438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집
최 영 자 (헬레나)
☎6-6951
동서관통로 신탁은행 앞

보이는 만족을 모든이에게
국제안경원
3대 만족을 드립니다
가격 · 품질 · 봉사
대표 김 승 귀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5
(가톨릭 쎈타 옆)
☎84-5701

# 예수님 "行" "止" 하시죠

"예수님 一次세계 대전이나, 二次세계대전, 그리고 6·25사변, 월남전 때에는 무척이나 바쁘셨죠? 그런데 요사이는 전쟁이 없어서 꽤나 심심하시겠습니다." "심심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고?" "다름이 아니옵고 전쟁을 할 때는 한꺼번에 열명도 죽고, 때로는 B29가 백대 정도 떠서 폭탄을 퍼붓는 날이면 수 백명씩 떼죽음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천당이나' '지옥이다' '연옥이다' 판결하시려면 밤샘하신 적이 한 두번 아니셨겠고, 과외 수당도 꽤나 받으셨겠습니다." "넥끼, 신부가 못할 소리가 없구나." "이치가 그럴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무엇을 하자는 말인고?" "심심하실까봐 인공위성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무엇하러 왔지? 사순절 때 교육, 가정방문, 병자, 소외된 자를 위하여 일이나 할 것이지." "저희는 월요일이면 쉬는 날이라서요. 그래서 「行」「止」하러 왔습니다." "행지라니?" "예수님께서는 중동 지방에서 태어나셔서 한자어를 모르시나봐요. 행, 지는 영어로 Go STOP이라는 화투 놀이입니다." "그래 알았다. 요사이 한국에서는 여성들도 여관까지 빌려 크게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다." "예수님 그것 뿐아니라 친구 부인이 첫 아이를 출산하려 병원에 입원했길래, 동료가 병문안을 하였더랍니다. 입원실 문을 여니까 어머니와 친구, 아이날 산모가 화투를 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배를 잡고 웃었더니, 산모 왈 나 아기 후딱 낳으려고 그런다 그러드래요." "그러나 저라나 나를 생각해서 이곳까지 찾아와 줘 고맙다." "그러면 시작하네요. 잉" "그래 그래." "오동삼패네요. 뚝… 탁… 홍단했습

## 사 제 단 상

니다." "G 입니다. G라 go라는 뜻입니다." "그래" "툭탁… 결열장입니다. 투고입니다. 툭탁… 또 붙었습니다. 쓰리고입니다. "스톱" 예수님 피박입니다. 9점에다 피박, 쓰리고, 흔들고 이만사천원입니다." "너 무슨 소리하느냐?" "저 예수님 꼬아먹지 않았습니다." "너 계산도 빠르구나, 구구단은 서툴지만." "G, S 계산은 빠릅니다." "그러면 이만사천원을 네가 다 갖는거냐?" "지상에서는요 오천원마다 천원을 뗍니다. 나중에 헤어지기도 그러니 짜장 한 그릇 소주 한잔 걸칩니다." "너도 신부가 된지 25년이 되더니 신부가 될 때 갖었던 마음이 많이 퇴색해졌구나." "예수님 가만히 생각하니 새 신부가 되었을 때 먹은 마음으로 그냥 살면 수도원 신부는 좋겠지만 재속신부는 안되겠드만요." "너 말하는 것이 신부라기 보다 꼭 장똘배기 말버릇이고나!" "예수님, 옛날에는 신자들이 미사끝나고 벌떼같이 집으로 쏜살같이 돌아갔지만 회합에다 사목회다 해서 친목일치에는 그만입니다요." "그러면 그 부인들이 성당에서 노름한다고 아우성 아니냐?" "그래도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성당에서 하면 점수를 좋게 주는 편입니다." "행지하는 것을 친목으로 한다니 장려 할바는 못되지만 묵인은 하겠다. 내가 부탁하나 하자꾸나." "예 말씀 하시옵소서." "너희만 재미 보지 말고 점심값에다 가난한 네 이웃을 위해서 좀 더 떼어 돕는 것이 어떠허냐?" "참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분부의 말씀 명심 하겠습니다."

김병엽 신부/괄마천주교회

## 교구소식

1. 혼인강좌 : 4월29일 오전9시30분 장소 : 가톨릭 센타.
2. 청년회 모임 : 일시－1990. 4. 21(토)오후3시 가톨릭 센타. 대상－각본당 청년회 임원. 회비－1,000원. 문의－교육국.
3. 예비신학생 신학교 방문 : 1990. 4. 29(일) 대상－중·고·대·일반 회비－2,000원(점심식대포함). 집결－9시 가톨릭센타.
4. 쎌테크닉 연수 : 북전주, 남전주, 임순남, 무진장, 삼례지구. 일시－1990. 4. 22(일) 오후2시 장소－이리 창인동 천주교회.
5. 초·중·고 교리교사 체육대회 : 5. 2(수)오전9시30분. 장소－해성학교 운동장. 참가비－1,000원 모든 교리교사 참여요망.
6. 축! 영명 : 21일(성안셀모) 김윤섭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7. 마리아 수도회 성소모임 : 4월29일 오후2시 장소－마리아 수도원(서울 망원동) 문의－(02)334－8547(성소담당자)
8.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피정 : 4월22일 9시30분－5시. 장소－광주시 본촌동 사랑의 씨튼 수녀회 한국지부. 회비－2,000원. 문의－광주(062)571－3004 전주(0652)77－4212
9. 한국 외방선교회 성소자 모임 : 4월22일(주일)오후2시－5시. 장소－예수고난회 명상의 집(광주시 북구 일곡동) 문의(062) 571－5004
10. 한국신흥증교 세미나 : 4월22일(일)10시－17시 장소－가톨릭 센타. 초청강사 : 이병호 주교. 김동준 신부. 노길명 교수(고대) 참가비 3,000원.
11. 울뜨레아(이리·익산지구) : 29일 오후2시 창인동성당.
12. 방송원고 모집 : 여러 계층의 갈등, 고민, 상담의 글을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 560－09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 85－0041－3(방송 담당자)

## 알고봅시다

부활절에 볼만한 영화

*먼 나라에서 온 성자*

4월14일 개봉 : 프라자 극장

문학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한 이 시대의 성인!
—교황 요한바오로 2세영화화—

## ◻정읍·김제지구 본당소식◻

### 고창

사제관 63-2552 주임신부 김 진 화
사무실 2-2044 사목회장 이 면 우
수녀원 2-3529

축! 부활, 예수 부활의 기쁜 삶을 삽시다.
금주성서 읽기 : 창세기23장～25장까지
오늘은 예수 부활 대축일 : ① 미사－6시, 10시30분 ② 친교점심식사－12시 ③ 친교행사－낮1시부터(주일학교율동, 가족노래자랑, 배구시합등)
다음주 모임 : 꾸리아 회합
부활성가를 준비해 주신 성가대 감사
부활초와 부활제대꽃 봉헌 하신분께 감사
금주전례 : 해설－이경택 독서와봉헌－김진태 이선분 부부
차주전례 : 해설－송기수 독서와봉헌－최종만 김영란 부부
지난주봉헌금 : 275,420원 ☐교무금 : 750,000원
2차헌금 : 37,500원

### *시기동

사제관 32-3282 주임신부 김 진 석
사무실 535-2169 사목회장 김 동 필
수녀원 33-9219
유치원 32-5777

1. 성모회·요셉회 : 공식미사후
2. 부활대축일(오늘)의 행사안내 : 미사후 전신자 한마당잔치. 점심, 농악, 윷놀이
3. 금주성서공부 : 화(17일) 저녁미사후 마르꼬복음서 4장
4. 애령회원께 : 봄철 애령회비 납부바람
5. 판공성사를 못보신교우 : 평일미사후 속히 보시기 바람
6. 성당청소 : 월－신비로운 장미 토－은총의 모후
7. 사무실 전화국번 변경 : 4월부터 2국이 535국으로 변경(535－2169)

☐지난주봉헌금 : 477,640원 ☐교무금 : 759,000원

### *연지동

사제관 33-0044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33-0898 사목회장 김 복 열
수녀원 33-2578

1. 축! 예수부활 : 부활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합시다. 10시미사후 전교우 같이 점심, 농악, 윷놀이, 고리걸기, 배구, 족구 있음
2. 오늘 영세받은 25명 새가족 축하드립니다.
3. 새로운 예비자 교리 : 4월29일(다음주일) 예비자 환영식과 더불어 실시됨. 많은 인도 바람.
4. 오늘 모임 : 성모회 5. 다음주 모임 : 사목회, 꾸리아, 애령회
6. 에스텔회 모임 : 4월19일(목) 10시30분
7. 전주 레지아 주최 레지오 단원 피정 : 4월21일(토) 10－오후4시30분, 전주 전동성당, 9시출발
8. 다음주일 본당 빚상환을 위한 2차헌금 있음
9. 구역모임 : 14,15구역－16일(월) 오후8시. 1,2구역－17일(화) 오후8시. 정우구역－19일(목) 오후2시.
10. 성당청소 : 월－인자하신 모후Pr. 토－천상의 모후Pr.

☐지난주봉헌금 : 374,040원 ☐교무금 : 482,000원

### 부안

사제관 84-1331 주임신부 안 철 문
사무실 84-1333 사목회장 양 용 산
수·유 84-1332

축! 예수부활 : 이 땅에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빌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지냅시다. 밤미사 없음 1부－미사 2부－행사(10시30분)
사랑의 성미 봉헌 : 신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꾸리아 회합 : 다음주 공식미사후
꽃봉헌 은인 구함
부활행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7일～20일까지 본당 미사 없음

### *신태인

사제관 571-2444 주임신부 유 장 훈
사무실 571-2024 사목회장 오 영 화

※ 예수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1. 판공성사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서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2. 빈첸시오회 월례회는 다음주일(22일)에 있겠습니다.
3. 성지회 월례회는 4월21일 오후7시 입니다.
4. 사순절 저금통 빚 성미주머니를 다음주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봉헌금 : 260,660원 ☐교무금 : 311,000원
☐2차헌금 : 176,920원

### *요촌

사제관 44-0152 주임신부 안 용 기
사무실 44-0151 사목회장 조 두 종
수녀원 44-0153
유치원 546-3788

1. 오늘은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2. 판공실시 : 매일 미사후에 있습니다.
3. 축! 영세 : 15일(일) 오전9 : 30
4. 데레사회 월례회 : 21일(토) 오후6시30분
5. 유호회 월례회 : 21일(토) 저녁7 : 30분
6. 유치원 소풍 : 24일(화) 오전7 : 00
7. 레지오옥외행사 : 29일(일) 오전7 : 00 출발, 천진암

☐지난주봉헌금 : 227,980원 ☐교무금 : 487,560원

### *수류

사제관 주임신부 문 선 구
사무실 43-0581 사목회장 고 광 열
수녀원

축! 부활 : 부활하신 예수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수류·원평간 친선체육대회 : 오늘 오후1시부터 화율국교에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임 : 소화회－미사후 교육관에서
다음주 모임 : 꾸리아 월례회－공식미사후
레지오단원 우정의 날 행사 : 5월5일 오전11시부터 경남하동 백사장에서, 본당에서 오전7시 출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꾸리아 단장님께 신청바람

### *신풍

사제관 44-2272 주임신부 이 성 우
사무실 44-2271 사목회장 김 진 태
수녀원 44-2273

※ 예수부활하셨네. 많이 참례하여 축하와 영광 드리세(공소형제들도)
1. 오늘의모임 : 울뜨레아회, 애령회(부활축일로 다음주일에 모임)
2. 다음주 모임 : 꾸리아회, 울뜨레아회, 애령회
3. 공소미사 : 대축일로 22일 주일 용지공소, 29일 주일 백자공소
4. 토끼저금통 : 신학생후원금에 사용되는 토끼 살찌게 길러 봉헌합시다.
5. 유아세례 : 4.21(토) 오후3시～사무실에 접수 바람
6. 축! 혼배 : 4.22(일) 13시－신랑(이민환)베드로, 신부(박정화) 축하합니다.
7. 금주독서 전례 : 독서－성인복사 전례－백강석
   차주독서 전례 : 독서－선지자의 모후 전례－허정운 저녁－김미애

☐지난주봉헌금 : 272,520원 ☐교무금 : 395,000원

### *원평

사제관 43-0880 주임신부 전 종 복
사무실 43-4236 사목회장 오 재 천
수녀원

※ 축 부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빕니다.
1. 금주모임 : 데레사회, 아브라함회
2. 차주모임 : 청년회, 학생회
3. 체육대회 : 수류와의 친선 체육대회가 수류성당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형제애를 나눕시다.
4. 돼지저금통 : 사순절동안 준비하셨던 돼지저금통을 봉헌하여 주십시요.